

'17년 금융교육협의회 부위원장님 모두발언 주요 내용

< 협의회 개최 의의 >

- '금융교육'은 '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'의 출발점으로 그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
- 특히, 금융교육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,
- 금융소비자가 바람직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합리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

< 금융정책 방향 >

- 올해 금융정책 여건은 낮은 성장세속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,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
-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은
 - ①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고,
 - ② 서민·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
 -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함
-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임

< 금융교육 기본방향 소개 >

- 따라서, 금번 「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」도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검토되었음.
- 먼저, 가계부채 증가, 고령화 사회의 심화,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최근 금융시장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교육 방안을 마련함
- 아울러, 신용·부채 문제 등을 가지고 있거나, 금융피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'금융소외계층(다문화, 장애인 등)'에 금융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았음
- 이러한 금융교육은 비단 금융 당국만으로는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
- 교육·복지·고용·다문화 및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
- 이를 위해, '금융교육협의회'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, 인력양성·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조정·보완하는 방안도 포함
-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성숙을 이끄는 것은 금융교육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